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6 호

백 리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선 영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17년 4월 16일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http://sachonlee.net>

조상숭배 정신을 이어가려면



사천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춘계대제에 참석해 주신 전국 각지의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원사의 시조공 이하 6세 7현의 대제(大祭) 봉향은 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정신이 스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종인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후손에게 뿌리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좋은 계기(契機)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내려오면서 유교적 제례에 의한 조상숭배 정신은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국가적 기반이 되었고, 치국(治國)의 근본이념이었으며, 양반·상인(常人)이 모두 4대 봉사(奉祀)를 실천하여 조야(朝野)에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각 과조문중의 재실(齋室)에서 지내고 있는 묘사(墓祀), 가정에서 지내는 기제사(忌祭祀)와 절사(節祀)도 모두 조상숭배 정신이며 일가친족의 화합과 뿌리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사회를 살아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제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조상숭배 정신의 진정성이 쇠퇴(衰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 부모와 조부모 외에는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 제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 묘사나 대소문중의 종사(宗事)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 등은 문명사회의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

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조상숭배 정신을 이어가는데 진정성(眞正性)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에 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문명사회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성씨의 수는 5천5백82개로서, 이는 2000년 조사 때 283개보다 15년 사이에 무려 5천3백 개가 늘어난 수입입니다. 성씨가 늘어난 이유는 귀화(歸化)한 외국인이 증가하고 창성창본(創姓創本)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천(동성)이씨의 인구는 1만1천55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본관을 사천으로 조사: 8,616명, 동성으로 조사: 2,938명). 총인구 4천9백7십만 명 중 성씨본관 수는 3만6천744개이며, 1천명 이상인 성씨본관은 858개입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1만1천554명의 사천(동성)이씨는 그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조의 유업 덕택으로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숭배는 가족·씨족·민족의 조상을 존중(尊崇)하여 제사지내는 풍속으로서 조상에 대한 일련의 유교적 신념입니다. 조상숭배 정신이 쇠퇴해진 때일수록 대소문중의 종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씨족간의 화합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조상숭배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년 양력 4월 셋째 일요일 조원사에서 행하여지는 춘계대제에 일가친족과 참석하여 부봉산의 정기를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대중회이사회

- 일시 : 2017년 2월 12일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2016년도 주요 중무 보고

1. 2016.4.17.11:00 조원사에서 춘계대제 및 총회

- ▶ 준비문중 : 성군진사공, 대곡문중, 이 영규
- ▶ 참여인원 : 110명(등록70명, 여자30명, 기타10명)



3. 2016. 9. 25(일) 11:00 임시이사회 개최

- ▶ 장소 및 참석인원 : 조원사 일원재
- ▶ 회의안건 : 구암선생 묘소, 지방 문화재지정 경과보고
- ▶ 지정일 : 2016 8. 25.
- ▶ 지정내용 : 경상남도 지방 문화재 기념물 제 284호
- ▶ 당일 오후2시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구암묘소에서 문화재 지정에 따른 고유제 시행



2. 2016. 5. 21 ~ 5. 22 제7회 구암제 실시

- ▶ 장 소 : 사천시청 광장 (노월광장)
- ▶ 내 용 : 시화전, 구암선생 과거시험 대과급제 재현
- ▶ 응시자 : 전국 유림 270여명



4. 2016.12.2(금). 14:00 사천문화원 대강당, 제15회 구암 학술세미나 개최

- ▶ 제1주제 : 관포 어득강 시에 나타난 물의 상상력
 - 발표자 : 정우락 (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조구호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 ▶ 제2주제 : 16세기 중엽 순천부사 이 정(李 楨)의 성리학 진흥
 - 발표자 : 이 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 민욱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
- ▶ 사 회 자 : 국문학박사 이 은식(구암연구소장)



2017년도 주요 종무 계획

1. 구암선생 제 445주기 제향거행

- ▶ 일 시 : 2017년 3월21일 (음력 2. 24) 화요일 오전 10:00경
- ▶ 장 소 : 구계서원 내 ※ 문중에서 많은 참석 요망



2. 2017년 조원사 춘계대제 제향 및 총회

- ▶ 일 시 : 2017년 4월 16일 셋째일요일 11:00 ~

3. 제8회 구암제

- ▶ 일 시 : 2017년 4월 30일 10시부터
- ▶ 장 소 : 사천시청 ※ 문중에서 많은 참석 요망



4. 제 16회 구암선생 학술 세미나

- ▶ 일 시 : 2017년 10월 이후(미정)
- ▶ 장 소 : 사천문화원 대강당(예정) ※ 문중에서 많은 참석 요망

5. 조원사 관리

- ▶ 조원사 외부 잡초제거 2회 정도
- ▶ 조원사 내부 잡초제거 제초제 살포 3회 정도

6. 2016년도 대종회 임원회비 수납

- ▶ 수납기간 : 2017.2.15 ~ 2017.4.10(수납기간 이후에도 수납)
- ▶ 회장 500,000, 부회장 200,000, 이사 100,000
- ※ 부회장(고문 포함) 3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조정 의결함.
- ▶ 회비입금계좌 : 농협 351-0698-3320-43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7. 장학금 조성사업 참여

- ▶ 참여방법 : 10,000원 이상 대종회 장학금 통장계좌로 자동이체(거래은행 에 신청)
- ▶ 장학금 통장계좌 : 농협 351-0698-3363-33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8. 구암선생 총서 발간계획

- ▶ 주관 :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 ▶ 시행기간 : 2017년도부터 5개년
- ▶ 목 적 : 중·고·대학교 교재 활용
- ▶ 위원구성 : 경북대학교 중심으로 전국대학교 교수로 구성
- ▶ 내 용 : 문화, 정치, 교육 등
- ▶ 예산확보 : 시·도·국비 활용
- ▶ 문중협조 :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암선생 관련 자료가 있으면 총서 발간 추진위원회에 제공

2017년 1차 이사회 회의

2016년도 예산 수입과 지출 결산심의 (2016.4.17 ~2016.12.26)

- ▶ 총 수입금액 : 14,676,531원 (이월금포함)
- ▶ 총 지출금액 : 10,024,460원
- ▶ 잔 액 : 4,652,071원
- ▶ 예산 수입과 지출내역 : 아래 결산내역표 참조
- ▶ 장학금 현재 조성실적 : 6,974,147원
- (2016년도 입금자 : 2명(선영, 창문) 300,000원, 이자 6,706원)
- 수입금 결산내역 : 생략

대종회 규약 일부개정건의

- ◆ 제7조(임원) 제1호 " 명예회장 : 전임회장 1명"을 "명예회장 : 1명"으로 함.
- ◆ 제8조(임원의 선출 및 방법) 제2항 일부개정(후단 신설) 및 제3항 개정

- ② 부회장은 각 파 문중에서 1명과 지역화수회장을 포함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지역 화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2017.2.12 개정)
- ③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로 함.(2017.2.12 개정)
- ◆ 제10조(임원의 임무)제2항 일부개정(후단 신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2.12 개정)
- ◆ 제20조의2(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신설
 - ① 대종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종인은 능력에 따라 기금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종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를 기부 또는 특별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④ 조성된 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목적사업 외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한 종인의 동의를 있거나,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대종회는 토지를 기부하거나 특별기금을 출연한 종인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종인"으로 표창(表彰)할 수 있다. 표창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2017.2.12 본조 신설)
- ◆ 제25조(기타) 일부 개정(대의원 규정 삭제)
 - "본 규약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되 임원회(이사회와 대의원회라 칭한다)의 의결로써 시행한다."를 "본 규약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되,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로 하고 <각 문중별(파조별) 대의원 배분표>를 삭제한다.(2017.2.12 개정)
- ◆ 종규 조항표기 수정 : "00조 1. 2. 3..."을 "00조 ① ② ③ ..."으로 한다.
- ◆ 부칙
 - 개정종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종규개정 당시 조성된 기금은 개정 종규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9대 임원선출

- 회 장(연임) : 선영(24세, 참지공파, 부산)
- 수석부회장(신임) : 영근(24세, 선무랑공파, 하동)
- 총 무 국 장(신임) : 대종(24세, 우소재공파, 사천)
- 명 예 회 장(연임) : 봉록(22세, 첨정공파, 사천),
- 고 문(3명, 연임) : 병대(25세, 진사공파, 대전), 원기(23세, 첨정공파, 창원), 영규(25세, 성균진사공파, 경기 용인)
-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함.
- 부회장(13명)
 - 참지공파 : 종수(24세, 부산) 영철(25세, 거창) 병무(26세, 경남 거제)
 - 진사공파 : 이남민(27세, 충남 계룡)
 - 참의공파 : 영기(25세, 진주 평거)
 - 첨정공파 : 종현(24세, 경기 안산), 용섭(23세, 전남 광양)
 - 우소재공파 : 재봉(28세, 거창)
 - 백인재공파 : 영일(27세, 사천) 형환(25세, 하동 진교)
 - 성균진사공파 : 정섭(26세, 진주 옥봉)
 - 선무랑공파 : 영근(24세, 하동 횡천)
 - 생원공파 : 무식(26세, 부산)

이사명단(42명)

- 참지공파(6) : 기명(24세, 진주 대곡), 종두(25세, 대구), 호종(25세, 서울), 호종(25세, 함안 칠원), 정석(27세, 광주), 준용(25세, 창원).
- 진사공파(2) : 형창(26세, 군포), 남도(27세, 경기)
- 참의공파(5) : 주호(24세, 부산), 철호(24세, 창원), 영택(25세, 부산), 영학(25세, 울산), 현명(26세, 진주).
- 첨정공파(1) : 만국(23세, 부산),
- 우소재공파(9) : 영갑(25세, 부산), 영국(25세, 양산), 순호(27세, 합천), 영춘(25세, 부산), 창문(27세, 부산), 봉호(23세, 광양), 우식(25세, 사천), 대종(24세, 사천), 영근(25세, 진주)
- 백인재공파(6) : 순호(25세, 사천), 용수(25세, 합천), 형부(25세, 대구), 영기(27세, 진주 하대), 성대(28세, 하동), 권식(29세, 사천).
- 성균진사공파(5) : 영섭(25세, 사천), 기호(25세, 창원), 승열(27세, 사천), 정찬(26세, 사천), 경구(25세, 부산), 인천(26세, 대구)
- 선무랑공파(3) : 동선(22세, 남원), 정배(23세, 하동), 경호(24세, 부산),
- 생원공파(5) : 삼도(25세, 부산), 상석(25세, 부산), 태복(26세, 거창), 재수(27세, 합천), 태일(33세, 대구) ※ 임원은 총회 시 변동될 수 있음

임원의 임기

- 2017년 4월 17일 ~ 2020년 4월 총회일까지

파조문중별 이사 현황(고문, 회장, 부회장 포함)

계	참지	진사	참의	첨정	우소재	백인재	성균진사	선무랑	생원
61	10	4	6	4	11	8	8	4	6

고난과 성공의 씨앗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이사장 **최상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을 겪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 속을 헤매게 된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실과 바늘처럼 늘 붙어 다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좌절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반드시 숨어 있다.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눈앞에 놓인 고난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역경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 좌절과 실패라는 터널을 지나야 비로소 성공이라는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생에 시련의 파도가 닥친다면 정면으로 응시하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

희망에 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닥친 좌절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든 공적 업무에서든 당장의 시련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자신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미래에 성공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어떤 이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삶의 돌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세상살이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실패를 불평과 원망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과 또 그것을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

어쩌면 오늘도 좌절을 안겨주는 많은 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고난에는 언제나 성공의 씨앗이 숨어 있다. 나를 시련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발돋움하겠다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자.



구암총서 발간을 위한 제언



구계서원 서원장 문학박사 **이은식**

구암선생의 행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 매우 다양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간행물을 편찬한 분이라고 정리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져 오는 자료는 남아 있어야 할 것을 추정하여 현재, 있는 것을 보면, 없어서 버렸거나 어디엔가 있을 자료가 틀림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술세미나 그리고 번역 등의 작업으로 구암선생을 정립하기에는 구리거울을 보는 것만큼 흐릿합니다.

구암총서를 발간하려는 기획이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천사에서 송도근시장의 결단으로 구암총서를 발간하려고 시장실에서 숙의를 하고, 올해부터 5년정도 기간으로 이 기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획은 다음과 같은 대강을 마련하였습니다.

1. 구암선생과 연관된 서적번역 및 자료수집
2. 구암을 중심으로 한 조선중기 역사적 연구
3. 구계서원 정비사업
4. 그 외 구암선생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정비

이러한 기획은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에서 맡았습니다. 어느 특정 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으나, 혹 지역성이나 교수의 개별적인 전문성에 한정될 수 있고, 예산 집행도 매우 복잡해서, 구계서원 원장이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전국의 대학에 한문 등의 전공자를 섭외하고 연구진의 틀을 짜는 일은 경북대학교 정우락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참에 올해는 구계서원의 정비도 별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구산사비를 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구산사비는 400년 좀 못미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수 허목의 글로서 비의 모습도 매우 예술적입니다. 문화재 지정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서원의 행사나 서원에 오는 일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러한 원인은 서원은 한문으로 짜여진 문화라서 한문에 익숙하지 못한 현대인이 오기에는 주저하게 되기 때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통문화가 현대인에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대와 단절된 문화는 단순히 죽은 역사공간으로 현대인이 한번쯤 재미삼아 와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재미있어하는 감정을 찾아 서원과 엮어보려는 기획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함이 안타깝습니다. 사천은 작은 도시라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드뭅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중에서나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구암선생 혹은 구계서원 자료를 내놓는 일에 적극적이면 일을 하는 필자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자료는 매입할 수 있고, 판매를 원하지 않으면 참고한 뒤에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암선생의 발자취를 찾기 기록하고 서원의 옛 모습을 찾는 일이 필자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암선생 제445주기 춘계제향 사진들

2017년 3월 21일
(음력2.24.),
구계서원에서



조원사 선조제향을 준비하면서



성균진사공파 제25세손 이영규

사천이씨 시조이신 휘식 할아버지 위패 및 시조 외 6위의 선조 위패를 1995년 4월 16일에 조원사 사당에서 종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식을 거행한 이래 2016년 4월 17일까지 21회에 걸쳐 제향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제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조원사 내외 청소와 음식물 준비 및 제물 만드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조원사 관리사에 거주한 종인인 이정오씨가 청소와 관리를 하였고, 그 뒤 그분이 운명을 달리함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17년도 춘계제향까지 성균진사공파 25세손인 필자가 실시하여 왔습니다.

음식물과 제물은 사천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5개 문중인 성균진사공 대곡문중, 첨정공 중선문중, 성균진사공 화암문중, 백인재공 고읍문중, 우소재공 대산문중 순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성균진사공 대곡문중에서 제향준비하기로 되어 있는바 필자의 책임 하에 조원사 청소와 여타 준비 등을 맡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는 조원사 내외, 일원제 내외, 관리사 주변, 주차장 및 계단 등에 잡초제거와 낙엽 등의 청소를 2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제물과 제향당일에 참석하신 종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기류 구입은 제향일 3일전(2016년 4월 14일) 삼천포 어시장에 가서 구입하여 준비하였고, 과일과 일반물품은 2016년 4월14일부터 15일까지 사천시장과 탐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제물과 음식물은 3일전부터 필자의 내자가 준비하였고 외부인력 2명은 제향일 전날부터 노임을 주기로 하고 불려서 일을 시켰습니다.

제향 당일은 외부인력 2명과 종인 가족이 동참하여 제물차림과 중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사용한 그릇과 주변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마무리 합니다.

이 행사를 끝내고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이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종인과 외부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문중에도 고령화로 인하여 인력이 없어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도시로 밀려가는 젊은 인력이 제향준비만은 참석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다른 사항은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제향경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애로가 많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난해에서는 문중 종인의 300,000원 찬조와 본인의 100,000원을 경비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제22회 2017년 4월 16일자 제향 준비 문중은 첨정공 중선문중에 22세손이시고 연세가 92세인 봉록대부께서 총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참여종인은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제향이 선조에의 송조상문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켜 주시고,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덕업성취에 기본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매년 제물과 음식물 재료구입은 다음의 제향제물 구입명세서를 참고하십시오. 명칭에 따른 물품은 전부 구입하여야만 하고 제시된 물량은 기준으로 보며,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대종회 제향 제물 구입명세서

(금액은 2016년도 시세임을 참고 바람)

명칭	수량	단위	금액	명칭	수량	단위	금액
1. 고기류			799,000	4. 떡종류			429,000
도미	7	마리	70,000	찰떡(인절미)	3	되	15,000
민어	21	마리	160,000	절편	3	되	30,000
조기	21	마리	210,000	밥	11	되	100,000
서대	21	마리	130,000	숙떡	10	되	228,000
바다대구	1	상자	115,000	5. 채소류			58,000
가자미	1	상자	114,000	고사리			8,000
2. 당종류			150,000	시금치			10,000
바지락/조개			50,000	콩나물			10,000
오징어			20,000	취나물			10,000
새우			30,000	숙주나물			10,000
두부	2	판	20,000	6. 술종류			108,000
홍합			30,000	막걸리	1	말	12,000
3. 과일류			178,000	소주	30	병	38,000
대추	1	되	5,000	음료수	2	박스	40,000
밤	2	되	6,000	맥주	2	박스	30,000
단감	21	개	10,000	7. 돼지류			350,000
사과	7	개	20,000	제사용 수육	7	접시	50,000
배	7	개	17,000	접대용 수육	130	명분	300,000
수박	7	개	20,000	8. 전종류			65,000
유과	3	봉지	7,000	정구지	4	단	12,000
문어	7	마리	14,000	방아	4	단	5,000
명태	7	마리	14,000	양파	2	단	6,000
방울토마토	1	상자	25,000	밀가루	3	포	12,000
밀감	1	상자	40,000	열합			10,000
				퓏고추			10,000
				땡초			10,000

명칭	수량	단위	금액	명칭	수량	단위	금액
9. 배추김치			150,000	종이컵	5	통	3,000
김치			150,000	커피	1	통	20,000
10. 양념류			65,000	오차	1	통	4,000
조선장	2	되	14,000	식용유	2	병	4,000
왜간장	1	병	5,000	멸치다시다	1	봉지	5,000
고추가루	2	근	20,000	계란	20	개	2,000
깨소금	1	되	12,000	부탄가스	4	개	5,000
참기름	2	병	16,000	소금	2	되	3,000
마늘			3,000	미원	1	포	2,000
물엿	1	통	2,000	담배 노래미	3	마리	10,000
설탕	3	Kg	4,000	(중식, 반찬용)			
막장	2	통	10,000	합계			2,500,000
생강	1	근	2,000				
미나리	1	단	10,000				
부침가루	2	포	6,000				
11. 쌀종류			50,000				
멧쌀(준비요원)	1	말	50,000				
12. 기타			98,000				
초	3	통	8,000				
향	3	통	2,000				
고무장갑	3	통	6,000				
풍뎠이	2	통	2,000				
세제비누			6,000				
1회용 장갑	20	매	4,000				
화장지	1	통	13,000				
수세미	3	개	2,000				
비닐봉투	300	매	7,000				

항렬(行列)



백인재공파 제25세손 이형환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대수 관계 즉 세대를 표시하는 세대칭으로 조항(祖行, 大父行), 숙항(叔行), 동항(同行), 질항(姪行), 손항(孫行) 등이 있으며 조항은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 숙항은 윗항렬(아버지와 같은 항렬), 동항은 자기와 한 항렬, 질항은 아래(아들)항렬, 손항은 손자와 같은 항렬을 말한다.

조항 위로는 증조항, 고조항이라고 하며 그 이상은 항렬을 따지지 않고 시조나 중시조로부터 몇 세(몇 세손) 또는 몇 대손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대수 관계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항렬자(돌림자)를 써왔다.

항렬자는 이름의 첫 자와 둘째 자를 번갈아 쓰는데 한 대가 첫 자를 쓰면 다음 대는 둘째 자를 쓴다. 그러므로 일가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항렬자를 쓰면 그 사람은 나의 윗항렬이고, 할아버지와 같은 돌림자를 쓰면 그 사람은 할아버지뻘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항렬자(돌림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항렬에서 한 자나 두 자를 대종회에서 오행상의 원리를 따라 상서(祥瑞)로운 글자만을 미리 골라 서정하여 족보에 올려놓고 이름을 짓는 것이다. 항렬이 조항(祖行)이면 족조, 족대부 또는 대부라고 부르고 숙항(叔行)이면 족숙 또는 족장이라 부르며 동항렬(同行列) 족제, 족형 질항(姪行)을 만나면 족질, 손항(孫行)이면 족손이라 일컫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먼 일가나 종씨라도 항렬자를 알면 그가 시조의 몇 세손인지, 누가 손위 항렬인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어 항렬자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항렬이 자기보다 낮은 아래 항렬이라도 나이가 월등히 높으면 일가양반, 일가어른, 족장, 조카님, 손주양반 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본다.

그런데 요즘은 이름을 예쁘게, 부르기 좋게, 듣기 좋게 지으므로 일가 사람이라도 이름을 듣고는 위아래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져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유산인 항렬자의 체계가 걱정된다.

자기의 뿌리를 몰라서 손자뻘 되는 일가나 종씨를 나이가 위라고 종씨형님으로 부르는 실수를 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천(동성)이씨의 항렬표(行列表)

세	22	23	24
항렬자行列字	환.현(煥煥)	중.기(中基)	종.호(鍾鎬)
영.영(永泳)	진.식(震植)	남.준(南俊)	유.규(圭奎)
태.용(兌鎔)	연.수(淵洙)	신.영(申榮)	화.렬(華烈)
재.재(在載)	석.현(錫鉉)	임.호(任浩)	인.권(寅權)
경.병(景炳)	중.곤(中坤)	박.옥(柏玉)	홍.래(泓泰)
동.주(東柱)	형.주(炯柱)	균.성(均城)	사.록(沙錄)
문.옥(汶沃)	계.도(桂桃)		

작명 예 : 24세 英鎬 또는 英鎬, 25세 永珉 또는 泳珉



사천이씨 부산청년회 회장
법무법인 正人 대표변호사
우소재공파 제25세손 이영갑

구암선생 묘갈명 (龜巖先生 墓碣銘)

된 일을 강력히 호소하는 자가 있었다. 감사(監司)는 그 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공은 그 억울함을 고집하여 서로 합치되지 않자 바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3년 뒤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와 제사의 절차를 보니 모두 의례를 잘 아는 것으로 여겨졌다. 3년상을 마치고 상복을 벗은 후 성균관에 복귀하여 사성(司成)으로 승진하였다. 퇴계선생과 더불어 성균관의 장관과 차관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성균관 학사들의 학문이 크게 흥하였다.

明年 出清州 州境大治 明宗賢之 又有以行誼上聞 擢加通政 後入政院 轉至左承旨 當歸省鄭夫人于鄉 明宗命廩給其家 以獎其孝 遷兵曹參議 尋拜大司諫 上書論治道(명년 출청주 경주대치 명종현 지 우유이행의상문 탁가통정 후임정원 전지좌승지 상귀성정부인우항 명종명 늬급기가 이장기호 천병조참의 심대대사간 상서논치도)

다음해 정주목사(淸州牧使)로 나가 고을을 잘 다스려 명종임금이 이를 치하하였다. 또한 도의에 알맞은 일을 한다고 임금께 알려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특별 승진하였다. 그 뒤 승정원(承政院)에 들어가 벼슬이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이 때 모친인 정씨부인(鄭氏夫人)에게 문안하러 고향에 간 일이 있었는데, 명종 임금께서 나라에서 그 집에 곡식을 주도록 하여 효행을 장려하였다. 병조참의(兵曹參議)로 옮겼다가 곧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었는데 상소를 올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累月 出尹東都 問舊俗修廢政 又大修新羅列王墓 其有功德於民者 特祭之 作西岳精舍 聚諸生講業 於是 蔚然稱東都之教 入爲戶曹參議 復出爲順天府 昔廢主多殺一時賢人名士殆盡 寒喧金先生嘗謫居於此 卒以見殺 玉川上有臨淸臺 後人悲其遺蹟 公立景賢堂以祀之(누월 출윤동도 문구속수폐정 우대수신라열왕묘 기유공덕어 민자 특제지 작서악정사 취제생강업 어시 울연청동도지도고 입위호조참의 부 출위순천부 석폐주다살일시현인명사태진 한훤김선생상상적거어차 졸이건살 육천상 유임청대 후인비기유적 공립경현당이사지)

몇 달 후 경주부윤(慶州府尹)으로 나가 남은 풍속을 따져 묻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았다. 또한 신라 여러 왕들의 무덤을 크게 수리하고 그 중 백성들에게 공덕이 있는 이를 특별히 제사지냈다. 서악정사(西岳精舍)를 짓고 유생들을 모아 학문을 닦게 하였다. 이리하여 성대히 동도(東都-경주)의 교화를 칭송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으로 들어가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가 다시 순천부사(順天府使)로 나갔다. 예전에 폐주(廢主) 연산군이 많은 사람을 죽여 일시에 현인과 명사들이 거의 없어진 적이 있는데, 한훤당(寒喧堂) 김공필(金宏弼) 선생도 일찍이 이곳에서 귀양 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했다. 옥천(玉川)가에 임청대(臨淸臺)가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유적을 애달파하자 공이 경현당(景賢堂)을 세워 제사 지냈다.

後年 鄭夫人沒 公已五十五 哭泣羸毀 又有明宗之喪 既居哀 哭踊爲次 服斬衰 以齊衰卽私喪 南海上人 始知居哀服君喪之節 宣祖之元年 召爲副提學 上書辭之 仍陳勸戒幾千百言 皆格言至論 自是 凡除拜 皆不就 於所居作龜巖精舍 東曰居敬齋 西曰明義齋 日與諸生 講學不倦 學者稱之曰龜巖先生 享年六十卒(후년 정부인 울 공이오십오 곡율리해 우유명종지상 기거에 곡용위차 북침최 이제최죽사 상 남해상인 시지거에복군상지절 선조지원년 소위부제학 상서서지 임진권계 기천백언 개격언지론 자시 범제배 개불취 어소거자구암정사 동월거경제 서 월명외제 일어제생 강학본권 학자칭지절구암선생 향년육십졸)

몇 년 후 모친인 정씨부인(鄭氏夫人)이 돌아가셨는데 공은 이미 55세인데다가 지나친 슬픔으로 몸을 상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명종(明宗)임금이 승하하는 바람에 이미 상중에 있으면서 다시 통곡이 이어졌다. 참쇠(斬衰) 상복을 입은 위에 자최(齊衰) 상복을 입고 모친상에 나아가니 남쪽 바닷가 사람들은 비로소 부모의 상중에 임금상의 상복을 입는 예절을 알게 되었다. 선조(宣祖) 원년(元年, 1568년) 부제학(副提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상소를 올려 사양하면서 수천 마디의 충언(忠言)을 진술했는데 모두 도리에 지극히 합당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임금의 부름에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기거하는 곳에 구암정사(龜巖精舍)를 지었는데 동쪽을 거경재(居敬齋), 서쪽을 명의재(明義齋)라 하였고, 날마다 여러 유생들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자들은 그를 구암선생(龜巖先生)이라 칭하였고, 향년 60세로 돌아가셨다.

公自初筮仕 至沒之年 凡三十六年 居外補者十九年 或置散 或居憂 或謝病者十三年 立朝僅四年 公之友鄭斗撰行狀云 端而慈寬而嚴 好古樂善 謹喪祭 篤恩義 可以居家 可以莅政 可以教後 晚而信道益篤 一以興學右文爲己任 宋以來諸儒道學之書大傳於東方 自公始刊布云 又所撰性理遺編 景賢錄 傳於世(공자초서사 지물지년 범삼십육년 거외보자십구년 혹치산 혹거우 혹사병자 십삼년 입조근사년 공지우정두찬행장문 단이각 관이업 호고약 선 근상제 독은의 가이거가 가이리정 가이교후 만이신도익독 일이홍학우문위기임 송이래제유도학지서대전어동방 자공시간 포운 우소찬성리유편 경현록 전어세)

구암(龜巖) 이정(李楨) 선생님의 묘소는 진주시 정촌면 대죽리 산 240-2번지에 있습니다. 묘소에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의 앞면에는 “通政大夫 守慶州府尹 慶州鎮兵馬節制使 李公之墓”(통정대부 수경주부윤 경주진병마절제사 이공지묘)라고 큰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좌우와 뒷면에 걸쳐 여러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인적사항과 행적 등을 글로 적어 묘비에 새긴 것을 묘갈명(墓碣銘)이라고 하는데, 구암선생님의 묘갈명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이란 분이 글을 지었습니다.

미수 허목(1595~1682)의 본관은 양천(陽川)으로 시호는 문정(文正)입니다. 현감 허교(許喬)의 아들로 이원익(李元翼)의 손녀사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하였지만 영남 남인의 거두인 한강(寒岡) 정구(鄭述)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의 예송논쟁으로 유명하며 남인의 영수였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이황(李滉)·정구(鄭述)의 학통을 이어받아 이익(李滉)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기호 남인의 선구자이며 남인 실학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암선생님의 묘갈명 내용을 보겠습니다.

公諱楨 字剛而 姓李氏 泗川人 自初祖世芳 至高祖彝倫 凡十二世 世學進士 號爲士族 而五世祖楹又賢 而以壽考 聞於昇平 時相國姜孟卿作壽瑞詩 後世傳其事 楸生彝倫 以孝特聞 彝倫生孟柱 孟柱生以蕃 以蕃生湛 湛娶鄭氏女 生公於四川龜巖里(공위정 자강이 성이씨 사친인 자초조세방 지고조이름 범십이세 세거진사 호위사 족 이오세조자우현 이이수고 문어승평 시상국강명경작수서사 후세진기사 자생이름 이효특문 이륜생명주 맹주생이변 이변생담 담취정씨녀 생공어사 천구암리)

공의 휘(諱)는 정(楨)이고 자(字)는 강이(剛而)이며 성(姓)은 이씨(李氏)로 본관은 사천(泗川)이다. 선조인 세방(世芳)으로부터 고조부 이륜(彝倫)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대에 걸쳐 대대로 진사(進士)가 되어 사족(士族)이라 일컬어졌다. 5대조인 자(楹) 또한 어진데다가 장수하여 대평성대의 징조로 알려져 재상 강맹경이 수서시(壽瑞詩)를 지었는데 후세에 그 일이 전해지고 있다. 자(楹)가 이륜(彝倫)을 낳았는데 효성으로써 특별히 알려졌다. 이륜이 맹주(孟柱)를 낳고, 맹주는 이번(以蕃)을 낳았으며, 이번은 담(湛)을 낳았다. 담이 정씨의 딸에게 장가들어 사천 구암리에 공을 낳았다.

公自幼時 知讀書勵行 時主庵宋學士以直道斥 不用於朝 謫居泗上 公從以受業焉 學益成 二十五 擢第壯元 初受成均館典籍 後六年 由禮曹正郎 出守榮川 時從弟子列 初見退陶李先生於陶山(공자유시 지독서려해 시구암승학사이직도적 불용어조 적거사상 공증이 수업언 학익성 이십오 탁제장원 초수성관관전적 후육년 유예조정랑 출수령 천 시중제자열 초경퇴도이선생어도산)

공은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힘써 행할 줄 알았다.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가 바른 도리를 행했음에도 배척받아 조정에 기용되지 않고 사천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자 공이 따르면서 학문을 익혔다. 학문이 더욱 성숙한 25세 때에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처음 성균관(成均館) 전직(典籍)을 제수 받았다. 6년 뒤 예조정랑(禮曹正郎)을 거쳐 영천군수(榮川郡守)로 나갔다. 이 때 제자의 대열에 서서 도산(陶山)에서 처음 퇴계 이황(李滉) 선생을 보았다.

考滿 觀察使上治績陞秩 後以親老乞養 爲善山 府民有訴其妹抵死 監司力主之 公持其冤 既不合 輒棄官歸 居三年 先府君沒 觀其葬祭居喪者 皆以爲知禮 服闋 復居館職 陸司成 與李先生得爲長貳 於是 庫舍學士 多興於學藝(고만 관찰사상지적승졸 후이친노 결양 위선산 부인유소기매저사 감사역주지 공지기원 기불합 첩기관귀 거삼년 선부군을 관기장제거상자 개이위지례 북결 복거관직 승사서 여이선생득 위장이 어시 상사학사 다홍어학예)

임기가 만료된 다음 관찰사가 공의 치적을 임금에게 아뢰어 품계가 올랐다. 후에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자청하여 선산부사(善山府使)가 되었다. 백성 중에 그 누이를 무고했다고 죽음을 처하게

공이 처음 벼슬한 때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대략 36년이다. 외직(外職)에 보임된 기간이 19년이고, 일정한 직무가 없는 산직(散職)에 있거나 상중(喪中)이거나 병으로 벼슬을 사양한 기간이 13년이며, 조정에 입조(入朝)한 기간은 겨우 4년 정도이다. 공의 친구인 정두(鄭斗)가 지은 행장(行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정하면서도 성실하고 관대하면서도 엄격했다. 고품을 좋아하고 선행을 즐겨했다. 상례와 제례를 공경스럽게 했으며 은혜와 의리를 소중히 여겼다.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해도 좋았고 벼슬길에 나아가도 좋았으며 후학을 가르쳐도 좋았다. 만년에 도(道)를 믿는 일이 더욱 돈독해졌으며 오로지 학문을 일으키고 숭상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송(宋)대 이래의 여러 유학사적이 우리나라에 크게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공이 간행하여 널리 보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였다. 또 성리유편(性理遺編)과 경현록(景賢錄)을 편찬하였는데, 그 책이 후세에 전한다.

初葬於萬竹山西麓 其後二十餘年 有倭亂盜發之 改葬於晉州之飛鳳山下 夫人宜城沈氏 子應寅 孫虎變 善學致譽 仕爲軍器寺主簿 次銀變 進士以詞賦有名於時 公既沒 鄉人不忘其教 立祀龜巖以祀公 銘曰(초창어만죽산서록 기후이십여년 유왜란도발지 개장어진주지 비봉산하 부인의성심씨 자응인 손호변 선학치에 사위군기시주부 차근본 진 사이사부유명어시 공기물 향인불망기고 입사구암이사공 명월)

처음 만죽산(萬竹山) 서쪽 기슭에 장사지냈는데, 그 후 20여년이 지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물레 파헤쳐지는 바람에 진주의 비봉산(飛鳳山) 아래로 이장하였다. 부인은 의성심씨(宣城沈氏)이고 아들은 응인(應寅)이다. 손자 호변(虎變)은 학문에 능한 것으로 이름 높았고 군기시(軍器寺) 주부(主簿)를 지냈다. 작은 손자 곤변(鯤變)은 진사(進士)로서 이 때 사(詞)와 부(賦)로 유명하였다. 공은 이미 돌아가셨으나 마을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잊지 못해 구암(龜巖)에 사당을 세우고 공을 제사지냈다. 그 명문(銘文)은 다음과 같다.

- 君子之履常 (군자지리상) 而道德之修彰 (이도덕지수장) 生而矜於一世 (생이금식어일세) 沒而俎豆於其鄉 (몰이조두어기향) 俾後人聞風而作興 (비후인문풍이자흥) 其教彌久而彌長 (기교미구이미장)

군자의 행실을 한결같이 하여 도덕을 닦고 밝게 드러내었네. 살아서 일세의 모범이 되니 죽어서 마을에서 제사로써 받드네. 후세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기풍 듣고 분발하게 하니 그 가르침 오래오래 이어지리라.

戊戌 三月日 立(무술 3월일 립)

1658년 3월 세웠다.

사천(동성)이씨 전국 인구수 11,554명

사천이씨 대종회 회장 이선영 자료제공

사천(동성)이씨의 전국 인구수는 2015년 11월 1일 현재 11,554명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씨의 수는 5,582개이며, 이는 2000년 조사 때 283개보다 5,299개가 많아진 수이다. 15년 사이에 성씨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귀화(歸化)한 외국인도 늘어나고 창성창본(創姓創本)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총인구 4,970만 명 중 성씨 본관 수는 36,744개이며, 1,000명 이상인 성씨본관 수는 858개이다. 이 중에서 사천(동성)이씨는 사천을 본관으로 8,616명과 동성을 본관으로 2,938명이 조사되었다.

사천주변 성씨본관별 인구수는 아래와 같다.
(표)

김해김씨:4,456,700	진주강씨:968,109
밀양박씨:3,103,942	진양강씨:193,217
전주이씨:2,631,643	고성이씨:88,587
경주김씨:1,800,853	김해이씨:1,975
경주이씨:1,391,867	밀양이씨:1,562
사천김씨:5,677	사천목씨:8,713
동성이씨:2,938	전주이씨:2,631,643
사천이씨:8,616	진성이씨:52,538
순천이씨:3,235	진주이씨:4,410
양산이씨:4,164	함안이씨:41,064
울산이씨:14,322	합천이씨:121,416
진양하씨:65,836	진주하씨:160,307

사천선비 대사간으로서 임금께 바른말



우소재공파 제25세손 이영근

24세 때는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를 만나 스승으로 삼고 학문을 익혔다. 또한 규암은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1470-1550)에게도 공부를 배웠다. 관포는 당시 문명이 드러난 인물로, 중종조 대사간을 지냈으며 고성 갈천서원(葛川書院)에 제향되었다. 관포를, 진양지에는 '山水를 좋아하여 벼슬을 구하지 아니하고, 時事를 보고 벼슬을 버려 만년에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고성 혼돈산(混沌山) 아래에 집을 지어 살았다.' 라고 기록하였다. 규암은 관포에 대해 '젊어서 잠시 관포어선생의 문하에 드나들었는데 선생이 많은 것을 가르치고 도와주므로 내가 가서 묻고 들을 수 있었고 선생을 가서 보을 적엔 반드시 수일 동안 머무르다 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있기도 하였다.' 라고 하였다.



25세때 문과별시(文科別試)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사신 가서 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와 이를 자료로 삼아 뒷날 성리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29세때 예조정랑을 지내고, 30세때 영천(永川)군수에 제수 되었다. 이때 고을 일을 처리함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함으로 관원들이 잘 따르고 백성이 편안하였다 한다.

32세때 가을 도산에서 처음 퇴계 선생을 만나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이때 풍기군수로 온 주세붕(周世鵬)을 만나기도 하였다. 주세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을 세운 인물이다.

35세에 선산(善山)군수로 갔다가 일년만인 이듬해 9월 향리로 돌아왔다. 향리로 돌아온 후, 명산을 두루 찾아 즐기며 산수와 더불어 유유자적하게 생활하였다. 37세때 두류산에 올라 쌍계사에 머물렀다. 이때 두류산에서 읊은 시가 전한다.

산의 우뚝함이여 仁者의 고요함 같구나W 바람 불어올음이여 성현의 깨끗함 같구나W 흰 구름 비상함이여 푸른 강 흐르는 것 같구나W 내 회포 많으니 누구와 더불어 評할까W 두류산에 올라 호연지지를 기르려던 규암의 기개가 배어 있다.

39세때 부친상을 당하자,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41세때 공주목사에 제수 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9월에 성균관 사성(司成)으로 부임하였다. 이때 대사성이 퇴계선생이었는데, 규암은 퇴계선생을 도와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일에 힘썼다. 한달 후 청주(淸州)목사로 나아갔다.

47세때 남명선생을 따라 두류산을 유람하였다. 이때 일행이 규암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곤양, 섬진강을 따라 유람을 하였다. 두류산에서 돌아온 후 거제에 귀양온 친구 정황(1512-1560)을 찾아갔다. 이때 규암이 배를 타고 가서 거제 해변에 있는 쓸쓸한 절에서 정황을 만나 사흘밤을 같이 지내고 다시 남해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전한다. 정황은 규암과 같은 해에 문과에 올라 홍문관 정자(正字)를 지냈는데 [양재역석사건]에 연루되어 곤양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거제에 이배되어 적소에서 생을 마친 인물로 규암과 친교가 두터웠다.

49세때 우승지(右承旨)가 되어 어머님으로 고향으로 가 어머니를 만나 안부를 물었다. 이때 명종이 경상감사에게 글을 내려 '승지 이정이 노모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니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할 것' 을 명하였다. 이는 충효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해 5월 대사간(大司諫)에 제수 되었다. 이때 규암은 수차례에 걸쳐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규암은 대사간으로서 임금에게 학문에 힘써 배우도록 권장하는 권학(勸學)상소를 올렸는데, 임금이 이 상소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후 병으로 세 번이나 상소를 올려 사임을 청해 상조군으로 옮겼다가 곧 호조참의에 제수 되었다. 9월에는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 되었다. 경주는 천년고도인데 부임하고 보니 백성들은 피폐하여 풍속이 문란하고 역대 왕릉들은 무너져 곳곳이 논밭으로 변해 있었다. 이에 규암은 즉시 왕릉을 다시 보수하고, 무열왕릉과 김유신 장군 묘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경주에 서악서원(西岳書院)을 지어 신라때 여진 사람인 설총 김유신 최치원을 향사하였다.

50세 때 도산으로 퇴계선생을 만나러 갔다. 이때 장마로 인해 퇴계의 집이 물에 막혀 갈 수 없었는데, 퇴계가 직접 예안까지 나아가 맞이하여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시 두수를 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경주부윤으로 있으면서 퇴계선생을 자주 찾아가 학문을 질정하기도 하였다. 52세때 경주부윤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 부사(浮査) 성여신(成汝信)이 찾아와 근사록을 배웠다. 또 사륜동으로 남명을 찾아가 수일 동안 머물면서 학문을 토론하였다. 55세때는 남명을 청하여 단속사에서 만났다. 이때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를 비롯한 여러 선비들이 모여 의리(義理)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뒤에 [晉州儒生獄事] 즉 하종악(河宗岳) 후실(後室) 함안이씨 실형(失行)사건에 대해 남명과 잠시 세정(世情)을 달리 하기도 하였다.

58세때 대관대(大觀臺)와 규암정사(龜巖精舍)가 준공되었다. 퇴계선생이 이 정사는 조용히 완상할 곳이 아니라 크게 내려다 볼 곳이라 하여 정관대(靜觀臺)를 대관대로 고쳐 부른 것이라 한다.

9월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조정에서 불렀으나 사면상소를 올렸다. 59세 때 퇴계선생의 부음을 듣고 제문을 지어 애도하였다.

60세 되던해(1571년) 규암은 '내가 세상에 나서 목숨을 부지한 것은 부모의 덕인데 이를 헤어리지 못하고 몸을 상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효가 아닌가' 라고 탄식하면서 정침으로 옮겨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떠난 후 선조는 제문을 내리고 예관을 보내어 애도하였다. (1996.9.6. 신경남일보 발췌)

제사(祭祀)와 종법제도(宗法制度) [제2부]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법무법인 正人 석전대제
이수자 이대효(李大孝)

1. 제사(祭祀)는 누가 지내야 하나?

시대별로 제사를 누가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종법제도(宗法制度)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였다. 즉 아버지를 이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누가 가통(家統)을 잇느냐에 따라서 제주(祭主)가 달라졌다. 고려시대의 종법제도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이라 하여 장자(長子)가 죽으면 차자(次子)가 가통을 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주자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까닭에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한 정통론의 종법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자(동생)가 아닌 장손(長孫)으로 가통이 전해졌다. 이를 주자성리학적 종법제도와 말하는데, 조선왕조 오백년 내내 권력의 향배에 따라 형망제급과 주자성리학적 종법제도를 달리 적용하였다. 즉 권력을 움켜쥔 자들에 의해서 다음 왕통을 옹립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새로운 종법제는 적처(嫡妻)에 아들이 없으면 첩(妾)의 아들이 승증하여 종통을 계승하게 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혼인풍습이 장가를 가는 풍습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은 후에 본가로 돌아왔으므로 외손봉사(外孫奉祀)가 많았다. 또 하나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로 적처의 부인을 두 명 또는 세 명을 얻고, 적처 이외에 첩을 여럿 두는 혼인풍습이 있었으므로 적통장자손을 여럿 둘 수 있어 종통(宗統)이 혼란스러웠다. 이에 신진사대부들은 주자성리학적 혼례제도를 정착하여 나가면서 적처는 한 명으로 하고, 두 번째 부인부터는 첩으로 하는 적첩제도를 확립하여 첩을 처로 삼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렇다면 제사를 누가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차자(次子)와 외손봉사가 가능할까?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종법제도로 보아 종법과 가통을 이은 자는 종자(宗子) 또는 장자(長子)이다. 제사를 주관할 봉사자(奉祀者)는 장자계승이 원칙이며, 그 다음은 장손에게로 이어진다. 만약 절손되었을 경우는 입후(立後)하여 가계를 이어야 한다. 이를 입후(立後) 또는 양자제도(養子制度)라 한다. 지자(支子) 또는 차자(次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자손들이 윤행(輪行=돌러가며 행함)하여 제사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있지만, 이는 과거 고려시대의 종법제도인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종법제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퇴계선생께서는 한강 정구선생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사사로이 인정에 끌려 대를 내세워 단호히 양자를 세우는 경우는 적고 외손이 제사를 모시게 하여 심지어 한 사당에서 두 성씨의 제사를 함께 받들고 있는데, 매우 불가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2. 세(世)와 대(代)의 비교, 세와 대는 무엇인가?

세대	호칭/관계	호칭/관계	제사종류 [제사장소] [제사시일]
1세(世)	시조(始祖)	9대조고(9代祖考)	시조제(始祖祭) [사당에서] [동지예]
2세(世)	아들(子)	8대조고(8代祖考)	선조제(先祖祭) [사당에서] [입춘예]
3세(世)	손자(孫)	7대조고(7代祖考)	
4세(世)	증손(曾孫)	6대조고(6代祖考)	시제(時祭), 묘제(墓祭), 세일제(歲日祭)는 [묘소에서] [10월 상순예]
5세(世)	현손(玄孫)	5대조고(5代祖考)	
6세(世)	래손(來孫-5대손)	고조고(高祖考)	기제(忌祭) [정침에서] [기일에]
7세(世)	곤손(昆孫-6대손)	증조고(曾祖考)	
8세(世)	영손(仍孫-7대손)	조고(祖考)	사시제(四時祭)는 [사당에서 / 중월(仲月)에] 네제(臘祭)는 [정침에서 / 계주(季秋)에] 묘제(墓祭)는 [묘소에서 / 3월 상순예]
9세(世)	운손(雲孫-8대손)	고(考) 또는 네(讎)	
10세(世)	9대손(代孫)	나(我)	봉사손 기준(奉祀孫基準)으로

- 주례 주관(周禮 秋官)의 대행인(大行人-鄭玄注)에서 [父死子立曰世] 아버지가 죽어서 자식을 세우는 것을 세라 한다.
- 자전(字典) 일부(一部)에서 [父子相代爲一世]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를 잇는 것을 1세라 한다.
-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 [父子相承爲世]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전하는 것(承-아버지는 물려주고, 자식은 이어 받는다)을 세라 한다.
- 주자어류(朱子語類-高祖)에서 [或問中說廟制處, 所謂高祖者何也? 曰四世祖也] 어떤 사람이 종도제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소위 "고조(高祖)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주자가 말하기를 "4세조를 말한다." 고 하였다.
- 구씨의절(丘氏儀節)에서 [丘氏曰, 高祖之父爲五世祖。推以上之爲六世爲七世] 구씨(구준-丘濬)가 말하기를, "고조의 아버지를 5世祖라 한다. 미루어 그 위로는 6世祖라 하고, 7世祖라고 한다." 고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先祖祭)에서 [語類問, 立春祭先祖則何祖, 曰自始祖下之第二世, 及己身以上第六世之祖也] 주자어류에 주자의 제자가 묻기를, "입춘(立春)에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선조를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께서 답하기를, "시조 아래의 차례로 제2세부터 자기 위의 제6세 조상까지를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였다.
- 삼국사기 고려사 문헌비고(文獻備考) 조선인명사서 國撰 史籍에 아버지를 1代祖 혹은 1世祖로, 아들을 1代孫 혹은 1世孫으로 세는 법을 준례(準例)로 하였다.
- 청(淸)나라 피휘록(避諱錄)의 피세작대(避世作代)에서 세(世)자를 피해 대(代)자로 바꾸어 썼다.
- 정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孔子問孫 孔紂 孔子八世孫 安國 十二世孫 融 二十世孫 穎達 三十二世孫 道輔 四十九世孫] 공자(孔子)의 이름난 후손인 공부(孔紂)는 공자의 8世孫이며, 안국(安國)은 12世孫이고, 융(融)은 20世孫이다. 그리고 영달(穎達)은 32世孫이며, 도보(道輔)는 49世孫이다. 하였다.

관계구분	혈통의 차례(世=代)	관계호칭(조손관계)	비고
현조(玄祖)	6世(高祖之父)	6代 5世祖 5代祖	모두 생할 때, 즉 혈통의 차례는 자신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고조(高祖)	5世	5代 4世祖 4代祖	
증조(曾祖)	4世	4代 3世祖 3代祖	
조(祖)	3世	3代 2世祖 2代祖	世+祖 또는 孫을 붙여 말할 때는 자신을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부(父)	2世	2代 1世祖 1代祖	
나(己)	1世(기준)	1代 0世祖 0代祖	공자(기준)
자(子)	2世	2代 1世孫 1代孫	공리(孔鯉-字 伯魚)
손자(孫)	3世	3代 2世孫 2代孫	공길(孔伋-字 思)
증손(曾孫)	4世	4代 3世孫 3代孫	공백(孔白-字 子上)
현손(玄孫)	5世	5代 4世孫 4代孫	공구(孔求-字 子家)
래손(來孫)	6世	6代 5世孫 5代孫	공기(孔箕-字 子京)
곤손(昆孫)	7世	7代 6世孫 6代孫	공천(孔穿-字 子高)
영손(仍孫)	8世	8代 7世孫 7代孫	공경(孔鯀-字 子胤)
운손(雲孫)	9世	9代 8世孫 8代孫	공부(孔紂-字 子魚)

구암(龜巖)선조와 신재(愼齋) 주세붕선생



참지공파 제24세손 이 경 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오시면 '무산사'란 곳이 있는데, 그 사당 안에 경(敬)이란 글자를 새긴 바위가 있고 그 옆에 시(詩)를 각인한 비석(碑石)이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면에
恭敬如形影(공경여형영) 表恭由內敬(표공유내경)
書紳貴子張(서신귀자장)
參倚方言行(참의방언행)

동쪽 면은

'신재선생이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과 무릉(武陵)에서 수일간 유숙하면서 경(敬)자(字)의 뜻을 서로 강론한 다음 시 한 절 귀를 지었다.'

뒷면은 시의 설명으로
'공경이란 형체가 그림자 같아서 표면의 공손함은 내심에 있노라 놀랐도다 자장이 큰띠에 적었으니 언행이 바름을 잠시라도 잊으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선생(愼齋先生)의 글을 모아둔 무릉잡고 2권(武陵雜稿卷之二) 별집(別集)의 시(詩) 주경음(主敬吟)에도 있고, 무릉잡고 부록 2권(武陵雜稿附錄卷之二)의 신재선생년보(愼齋先生年譜)편에도 있습니다.

신재선생 년보(愼齋先生年譜)편을 살펴 보면,
中宗三十年(1535년) 乙未 愼齋先生四十一歲 (龜巖先生二十四歲)
與李剛而(禎) 論敬字之義

李公自泗上訪先生于武陵。留數日。相與講論敬字之義。先生贈一絕曰。恭敬如形影。表恭由內敬。書紳貴子張。參倚方言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번역해설을 의뢰하였더니 한님(翰軒) 류주환 선생이라는 분의 친절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강이(剛而) 이정(李禎)과 敬(경)자[敬이라는 글자]의 뜻에 대해 토론하다. 이공이 사천으로부터 무릉에 있는 선생을 찾아와서 며칠을 묵으면서 함께 敬자의 뜻에 대해 강론하였다. 선생이 시 하나를 써주었는데 다음과 같다.

恭敬如形影° 表恭由內敬° 書紳貴子張° 參倚方言行°
공경여형영° 표공유내경° 서신귀자장° 참의방언행°

공(恭)과 경(敬)은 형체와 그림자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공(恭)은 내면의 경(敬)에서 나온다네. 자장(공자의 제자)이 (이 글자를) 큰 띠에 적어 귀하게 여겼으니 별려서고,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즉 앉으나 서나, 항상)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야 하네.

이 시는 논어(論語)의 위령공 6장(5장으로 나오는 곳도 있음)을 보아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장(子張:공자의 제자)에게 공자가 말을 忠信(진실되고 미답게) 해야 하고, 行을 篤敬(돈독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忠信 篤敬(충신 독경)의 네 글자가 서 있을 때는 앞에 별려서 있는(參) 것을, 그리고 수레에 앉아 있을 때는 수레의 횡목에 기대어 있는(倚)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곧 앉으나 서나 그 네 글자를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장(子張)은 이 말씀, 아마도 저 네 글자를 (항상 보려고) 큰 띠에 썼다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恭(공)과 敬(경)은 비슷한 뜻이지만 주세붕은 恭(공)은 외면적인 행동, 敬(경)은 내면적인 마음가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言-忠信(충신)과 行-篤敬(독경)을 잊지 말고 항상 실천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翰軒]

또한, 이 시를 받은 1535년은 신재선생의 나이는 41세이고 칠원 무릉에서 부친상을 마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을 때이며, 구암선생의 나이는 약관 24세이었습니다. 이듬해 선생의 나이 25세에 근정전에서 치러진 문과별시에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신재선생을 찾아가 강론한 이 시기가 공부의 절정이었다 싶습니다.

그 뒤에도 선생 나이 32세에서 영천군수로 있을 때 당시 풍기군수로 있던 신재선생을 만나러 가셨고, 35세 때 신재선생이 이정선생의 선산부사 부임 축하시를 지어주었으며, 37세 때 서울로 승진해 간 신재선생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번 2017년 3월21일 구계서원의 구암선생 제445주기 제향 때, 신재선생의 후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후손끼리 집안의 왕래가 있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가을에 제사가 있다 하니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때찬



참의공파 제25세손 이 준

1945년 해방 직후 이런 동요가 있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사람 조심 하소." 2017년 지금의 현실은 구한말의 실책을 안타까워 할 계제가 아니라, 바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본질인 자원과 시장쟁탈문제는 21세기인 지금도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오히려 내밀하고 때로는 더욱 노골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자원 확보와 시장점유 전쟁은 여전히 국제문제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환경 인권 기후 등 보편적 문제에는 잠정적 합의를 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한 문제에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상태이다. 하여 언제든 세계 어느 곳이든 또 지금 이 땅에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중국은 쌍용자동차 및 사드사태에서 보듯 우리의 기술을 헐값에 후려쳐가고 노골적으로 국내문제에 간섭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핵심기술 및 중국에 투자한 자본을 몽땅 빨아들여 우리를 파산시켜 버리고서는 오히려 어설픈 관광객 중 단으로 쪼잔한 대국 행세를 한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 이익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력으로 세계질서를 장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명분에 사로 잡혀 한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 신세가 처량하다. 감정적으로는 일본을 욕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우리 곳곳에 스며있다.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빼어가 버리면 슬프게도 우리는 빈털터리가 된다. 국제정세는 냉엄하며 일본이 미국에 짝짜게 바짝 엮어드리는 점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고 주의 깊게 계산하여 타산지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바보라서 미국에게 바짝 엮어지겠는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영악하다. 국제정세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기는 자에 붙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제관계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고 대선 주자들은 국민을 편 갈라 정권쟁취에만 눈멀어 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밥 벌어 먹으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

이런 엄중한 시대 상황 속에서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의 잘잘못을 따져서 매물차게 심판하는 심판자의 습관에 젖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피곤하고 빈약해지며 또 막막하게 막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일에 "왜(why)"라는 까닭을 찾고, "어떻게(how to)"라는 방법을 찾는 질문에 대한 훈련과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 들고, 항상 올바르게 물으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즐겁고 풍요로워지며 또 다른 인생길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학습자의 길이다. 이것이 학생부군(學生府君)의 참된 의미이다.

부산화수회 제26년차 정기총회

일시 : 2016년 6월 5일(일요일)
장소 : 금강 국민호텔 대강당



부산화수회 회장 참지공파 제24세손 이 중 수

화수회는 화합과 동참, 고통까지도 공유하며,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담아 함께 발전해 나가는 화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화수회가 창립된지 26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관심과 성의가 없거나 몰라서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분들도 있으나, 또 주위에서 권유하면 참석하실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석을 못하지만 각 지역, 각 곳에서 생업에 열심히 하는 일가 모두가 우리의 자산이고 보배입니다. 내년 총회 및 가족단합 대회에는 더 많은 일가들이 참석해서 일가끼리 친목을 다지는 이날이 보다 융성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과거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거울삼아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화수회는 일가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마음에 다 차진 않더라도 감사주고, 덮어주고, 밀어줘야 하는 것이 화수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소통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의 고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총회 행사는 주말 나들이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대화의 장이 되고 한마당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화수회도 무궁한 발전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회장인사 에서)



100세 만세!



우소재공파 제25세손
이영춘

요즘 들어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저세상으로 갈 때까지 100세를 넘기는 이들은 흔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구전동화에 의하면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신은 장수하는 동물들을 뽑아 귀한 직책을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바다 속 용왕은 100세 이상 장수한 수중 동물들을 찾아 육지로 올려 보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용왕의 분부를 받들어 신하들은 지체 없이 넓은 바다로 장수 동물들을 찾아 떠났다.

처음 만난 동물은 떼 지어 살고 있는 붉은 성게들이었는데, 이들은 100살은 쉽게 넘기고 20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육지로 올라가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직책이라도 거절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만난 동물은 백합조개였다. 가장 나이 많은 백합조개는 400살이 넘었다고 지나가던 물고기가 말해주어 신하들은 기뻐하며 백합조개에게 높은 직책의 뜻을 전했다. 400년을 살아왔다는 백합조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입도 뻥긋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신하들은 다른 동물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

세 번째로 어렵게 찾아가던 곳은 멀고 먼 추운 바다였는데 이곳에서 200살이 넘은 북극고래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고래는 아주 먼 옛날에 육지에 살아봤지만 지금처럼 바다에서 사는 것이 좋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용왕의 신하들은 결국 장수 동물들을 데려오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다. 한숨을 쉬며 용궁 가까이 도착했을 때 즐겁게 헤엄치며 바다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한 쌍의 거북이를 만났다. 어딜 다녀오느냐는 신하들의 물음에 쌍둥이 거북이는 100세 생일을 기념하여 육지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신하들은 거북이들의 나이가 100세라는 말에 놀라고, 육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말에 더욱 놀랐다. 만세를 부르며 거북이들을 정중히 모시고 용궁으로 돌아왔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쌍둥이 거북이에게 육지로 올라가 물에서 장수하는 동물들의 대표가 되어 귀한 직책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북이들도 기뻐하며 용왕께 받은 갖가지 선물로 몸을 치장하고 육지로 올라갔다. 육지에는 이미 하늘을 대표하는 학과 땅을 대표하는 사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은 나이가 600살이 넘어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사슴은 불로초를 먹어 나이를 셀 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학과 사슴은 거북이를 반기며 육지의 산 좋고 물 맑은 곳, 오래도록 변치 않는 자연 풍경을 구경시켜 주었다.

「유람을 마친 후 학은 높은 벼슬아치의 옷에 새겨져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귀한 일을 맡았고, 사슴은 산에서 수행하는 신선들을 보필하고 불로초를 찾는 귀한 일을 맡았으며, 바다에서 올라온 거북이들은 귀한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맡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학과 사슴과 거북이를 보며 장수를 기원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자기의 분수에 맞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백세만세 무병장수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성재 보수와 선산묘소 탐방

참지공파 송곡문중

모성재는 1939년(기묘) 4월 사천(동성)이씨 참지공파 송곡 문중에서 선조의 제사를 모시고자 건립하여 80년이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 낡고 파손되어 붕괴의 위기에 처함에 따라 후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작은 성금을 모아 사명감과 열정으로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참여하면서 느끼고 부닥쳤던 슬한 번로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묻고 성금기부자의 정성과 보람된 마음을 길이 간직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20일



2017년 4월 1일에는 잘 단장된 모성재도 다시 와 보고, 선산묘소의 탐방 행사가 있었습니다.



소식지 7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7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 ★ **원고의 장르** : 각 문중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종회 운영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6호
- ★ **발행 일시** : 2018년 3월말, 대종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종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선무량공파 24세손)

